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2 회 추계학술대회 보고

제 72 회 추계학술대회 실행위원장 토모코 호쇼 (일본복지대학)

1. 프로그램 내용

2024 년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2 회 추계학술대회가 '현대 사회복지의 본질을 탐구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10 월 26 일, 27 일 2 틀간 아이치현 토카이시 예술극장과 일본복지대학 토카이 캠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면과 온디맨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722 명(중·한(中·韓) 자유발표자 5 명 포함)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가자, 발표자, 이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오전에는 토카이 캠퍼스에서 스타트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실천과 연구의 순환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야마노 노리코(山野則子)가 사회를 맡았으며, 3 분의(키사누키 에츠코 (木佐貫悦子), 마츠모토 다이키 (松本大樹), 야마모토 아야코 (山本綾子)) 발표가 있었고, 타니구치 유키코 (谷口由希子) 씨가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오후에는 토카이시 예술극장에서 개최식이 열렸습니다. 이때에는 일본사회복지학회 와케 준코 (和気純子) 회장, 토카이시 시장 하나다 카츠시게 (花田勝重), 제 72 회 추계대회장 겸 일본복지대학 총장 하라다 마사키(原田正樹) 가 인사말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학회상 시상식에서, 학술상은 오오사와 신페이(大澤真平), 기하라 카츠노부(木原活信)가, 장려상(논문부문)은 하타케나카 고(畠中耕)가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대회 학교 기획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생활 불안정층에 대한 새로운 안전망'을 주제로 중앙대학교 교수, 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 선생님이 기조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좌장을 맡으신 야마다 소시로(山田壮志郎)의 사회로 3 분(이시카와 쿠니코(石川久仁子), 가키타 유스케(垣田裕介), 카와시마 유리코(川島ゆり子))이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논평은 계속해서 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밤에는 토카이 캠퍼스 생협식당에서 정보교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3 명이 참가하였고, 외국에서 온 참가자들과의 인사를 포함해, 차기 개최학교인 동지사대학 교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교 교원인 유하라 에츠코(湯原悦子)와 이토 아야히토(伊藤文人)의 악기 연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종일 토카이 캠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걸쳐 구두 발표 157 건, 포스터 발표 75 건, 특정 과제 세션 3 건등, 많은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술심포지엄은 수어 홍(索宏), 야부나가 치노(藪長千乃), 카지와라 고스케(梶原浩介)가 좌장을 맡았으며, 중국에서는 최월금(崔月琴), 핀란드에서는 카츠이 히사요(勝井久代), 일본에서는 쿠로키 야스히로(黒木保博)가 발표했습니다.

특정과제 세션은 좌장인 다카기 히로시(高木博史)의 사회로 '일본의 사회복지의 현대 정치와 어떻게 마주하고 있으며, 마주해 왔는가'를 주제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회 기획 세션은 좌장인 이토 카요코(伊藤嘉余子)의 사회로 '사회복지에서의 '연결'을 재고하다' -『연결』과『익명성』을 주제로 4 분(강은화(姜恩和), 가케가와 나오유키(掛川直之), 오자와 아키히코(小澤昭彦), 마츠오카 요시노부(松岡是伸))이 발표하고, 야마가타 후미하루(山縣文治)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두 세션 모두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모두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현재 사회복지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대회 개최 학교의 입장에서 본 소감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앞으로의 모범이 되는 대회 운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원들의 업무가 이전보다 더 바빠지는 상황속에서 지속가능한 대회 운영의 틀을 확립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만큼 실행위원회의 멤버들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본교 70 주년 기념사업으로 자리 매김한 만큼, 회장은 학장, 실행위원장의 저는 사회복지학부장, 그 외의 위원들도 대부분 대학 및 대학원 집행부로 구성되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멤버로 준비하고 운영 하면서 '좋은 위치', '유기적 연계', '환대'가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관점에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위치'입니다. 본교는 4 개의 캠퍼스가 있지만, 이번에는 메이테츠 나고야역에서 17 분, 중부국제공항에서 20 분 거리에 있는 토카이 캠퍼스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과 식당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학교 건물이라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토카이 캠퍼스 및 토카이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덕분에 방문하신 분들로부터 '위치가 좋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적 연계'입니다. 운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지 학술집회 지원 회사인 (주)유피아를 참여시킨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2010 년도에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당시와는 상황과 구성원이 달라 이번처럼 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정에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비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였습니다. 하지만 (주)유피아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빈틈없는 준비와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3 명의 교사가 이끄는 각각 팀으로 나누어, 시간표와 매뉴얼을 정해 움직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주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외주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대'입니다.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회 사무국이 대기하고 있는 본부로 정보가 집중되어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작은 사고는 몇 번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휴게소에는 차와 과자를 배치해 참가자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정보교류회에서는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등 공이 많이 들어간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환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인 총평을 통해 다음 해의 학술대회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학회로서 '지속가능한 학술대회의 모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 년도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학회상 수상에 기대어

학회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4년도 학회상이 결정되어 학술상(단독부문)으로 오오사와 신페이 회원과 기하라 카즈노부 회원, 장려상(논문부문)으로 하타케나카 고 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제71회 추계학술대회 첫째 날인 2024년 10월 26일(토) 토카이시 예술극장 대홀에서 개최식에 이어 진행 되었습니다.

수상자분들의 기쁨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 학술상(단독저자 부문) 오오사와 신페이 (삿포르학원대학)

수상작: 『아동의 '빈곤의 경험'

-구조 속의 에이전시와 생활 기회의 불평등』

(법률문화사, 2023년 5월 30일 발행)

이번에 학회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심사에 수고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빈곤의 구조적 차원을 고려하여,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과 청년들의 주체적인 경험을 밝히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 책의 숨은 주제는 빈곤 연구에서 '인간관'을 묻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과 마찬가지로 빈곤 속에 처한 당사자의 질적 연구에 대해서는, 그간 오스카 루이스의 '빈곤의 문화론'이나, 특히 일본에서는 부르디외의 영향이 컸던 '문화적 재생산론'을 참조 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배경이 된 롤스, 셴, 누스바움 등의 저작에서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는 개개인의 자유의 문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 졌습니다. 또한 연구직에 들어가기 전, 약 8년간 고등학교에서 일하면서 관계를 맺어온 각각의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실패를 포함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빈곤·불평등 문제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책은 그런 '인간관'을 전제로 한 책입니다.

참고로, 매우 사적인 일이지만 송구스럽게도 작년에 제 아내가 학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이로써 2년 연속으로 사회복지학회상이라는 명예로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내와 저는 교대로 육아휴직을 하며 셋의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아마도 연구를 진행하는 데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가 나름대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의 연구자 여러분에게는 워크라이프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연구를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만난 많은 아동, 청소년들과 인터뷰에 응해 주신 각 개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환원하고자 합니다.

◆ 학술상(단독저자 부문) 기하라 가츠노부 (동지사대학)

수상작 : 『조지 물러와 기독교 사회복지의 원천 - '천조(天助:하늘의 도움)' 사상과 일본에 미친 영향』
(교문관, 2023년 2월 22일 발행)

이번에 일본 사회복지학회의 학회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이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저로서는 본래 회원 중에서 우수한 연구를 발굴하여 그들을 수상자로 추천할 위치에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이 상을 받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을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솔직히 기쁘게 상을 수락하고자 합니다. 제 연구는 전문적이고 다소 마니악한 역사 연구의 학술서이며, 일반 사람들에게 거의 읽히지 않을 수도 있고, 현대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실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을 사회복지학회가 평가해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연구 대상인 브리스톨의 고아 아버지, 조지 물러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된 것은 40년 전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어떤 분이 '신앙에 살아남은 사람 조지 물러'라는 책을 추천해주셨고, 그것이 물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추천해준 사람이 후에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지 물리의 삶의 방식에 감명을 받아, 자신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교로서 사회복지 실천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을 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이시이 슈지(石井十次)의 일지, 야마무로 군페이(山室軍平)의 자서전, 니이지마 조(新島襄)의 서간 등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물리의 이름을 여러 번 만나며, 역사상의 점들이 연결되어 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일종의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의 사회사업가인 이시이와 야마무로에게 제인 애덤스나 리치몬드보다 물리가 미친 영향이 더 컸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학구적 생활에 들어가며, 냉정한 실증주의에 기초한 역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기에 그려진 물리의 '너무 완벽한 이야기'가 과연 진짜인지,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건방지게도 점차 역사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검증해보고 싶다는 야망을 품게 되었고, 이것이 제 연구의 또 다른 동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7, 8 년 동안 집중적으로 자료 비판과 자료 분석을 진행한 결과, 그 역사적 사실이 역사적 비판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며,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물리가 저와 같은 폴리머스 형제단 계열의 '기독교 집회'의 일원이었고, 그가 그 초기 리더 중 한 명이었던 것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 덕분에 평소에는 손에 넣기 어려운 내부 자료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폴리머스 형제단 운동의 근원을 탐구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아베 킨야(阿部謹也)씨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 안에서 역사를 읽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뿌리와 겹치는 부분을 느끼며, 물리를 통해 폴리머스 운동의 역사를 파고드는 동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약 40 년 전, 아내에게 추천받아 읽은 전기가 계기가 되어, 이번에 한 권의 연구서로 결실을 맺은 것은, 말 그대로 신기한 만남입니다. 이 책은 많은 인연과 지지가 있었기에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 장려상(논문 부문) 畠中 耕(후쿠이현립대학)

수상작 : 「1930년대 시즈오카현의 신흥보덕운동과 신흥생활관」논문
(『사회복지학』제64권 제3호 게재 2023년 11월 30일 발행)

이번에 장려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한 소박한 논문이지만, 추천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상 사업 요강'에는 '향후 연구 발전의 발전이 기대되는

논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 과정에 있음을 자각하며 겸손하게 정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 지역을 필드로 설정하고 사회복지 역사자료를 발굴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역의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깊이 파고들어 통사 연구에서는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애매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즈오카현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보덕(報德)'의 영향을 의식하고 연구에 착수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사업에 대한 영향을 의식하게 된 계기는 시즈오카현 역사문화정보센터에 소장된 와시아마(鷲山)가문 문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시모히지 카타무라 장(小笠郡土方村長)이었던 와시아마 교헤이(鷲山恭平)가 소유했던 자료군으로, 보덕 운동 관련 자료 외에도 현 사회과, 사회사업 협회 관련 자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신흥 생활관' 연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평(講評)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신흥 생활관'을 포함한 근대 보덕 운동에 대한 평가는 어렵고, 결국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일환을 담당했다는 평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이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지역이 직면한 생활문제에 대해 교화적 방안으로 민중이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상반된 평가의 '흔들림'과 '긴장관계'를 의식하면서 앞으로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도교수인 이마이 코노미(今井小の実) 선생님, 지역사 연구의 선배이신 야가미 카즈미(矢上克己)선생님, 보덕운동사 연구의 선배이신 마에다 히사노리(前田寿紀) 선생님께 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승님인 타시로 쿠니지로(田代国次郎) 선생님께 수상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적 생존권'의 보장 실현에 일생을 바친 고독한 연구자의 삶은, 영원히 도달을 보지 못할 제 자신의 목표입니다. '빨리 책 한 권으로 정리해서 세상에 내놓으라'라는 꾸지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초기 경력 연구자 지원-미래를 향한 연결을 의식하다

연구 지원 위원회 위원 시마사키 츠요시(島崎 剛) (쿠루메대학)



현재 연구지원위원회에서는 초기경력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심포지엄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은 일본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때 개최되고 있으며, 초기 경력 연구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주제로 다루어 회원 및 비회원을 막론하고 다양한 초기 경력 연구자와 사회복지학 분야의 학계와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일본복지대학을 대회장으로 개최된 일본사회복지학회 제72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실천과 연구의 순환을 생각하다'라는 웅장한 테마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는 102명(비회원 20명, 관계자 제외)이었으며, 예년보다 높아진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일은 나고야시립대학 대학원의 타니구치 유키코(谷口由希子) 선생님을 해설자로 맞이하여, '실천자로서의 입장을 가진 초기 경력 연구자'로 키사누키 에츠코(木佐貫悦子) (아이치현 보건의료국 마음건강추진실 신고대응그룹 주사), '실천 경험이 없는 초기 커리어 연구자'로 마츠모토 다이키(松本大樹)(일본복지대학대학원 사회복지학연구과 사회복지학전공 석사과정), '연구대상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실천가'로 야마모토 아야코(山本綾子) (미에현 마쓰사카 보건소 보건위생실 지역보건과장 대리) 등 3명의 발표자가 발표하고, 연구지원위원회 위원장인 야마노 노리코(山野則子) 선생님(오사카 공립대학)의 코디네이션으로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실천과 연구의 순환은 실천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에 임하는 초기 경력 단계에서 그 의의를 의식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본 심포지엄 기획의 테마 구상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연구를 추구하는 초기 경력 연구자들은 대학원으로 바로 입학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실무자의 입장이나 어느 일정 수준의 실천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실천의 효과를 증명하고 싶다', '실천을 이론화하고 싶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천하고 싶다' 등 각자 연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연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처음의 의지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초기 경력 연구자도 있습니다. 연구 지원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다양한 기획에서, 이러한 초기 경력 연구자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번 기획은 '미래를 향한 연결을 의식하다'라는 심포지엄을 총괄한 메시지처럼, 다양한 입장에 놓인 초기 경력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자극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지원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연구지원에 관련된 기획을 제안하고 초기 경력 연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곧, 12월 21일에는 제5회 CS-NET 살롱 “살롱을 기획해 보시겠습니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지사대학의 이마데가와 캠퍼스에서 온라인과 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심포지엄을 실시하는 데 있어 일본 사회복지학회 제72회 가을 추계학술대회의 주체 학교로서 다양한 준비와 배려를 해주신 일본복지대학의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학생 스태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연구 지원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翻訳

姜守香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 社会学 修士課程)

번역

강수향(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사회학 석사과정)